



동북일보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표정

경로당에 40kg씩 똑같이 주는 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하라
중장기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구의회 심의도 거쳐야



▲ 주민생활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는 복지건설위원회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24일부터 30일까지 강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첫날인 24일 오전 10시 행정보건의위원회(위원장 이영심)와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열)는 강북구청 기획상황실과 대강당에 각기 마련된 감사장에서 감사를 시작했다.

◆복지건설위원회

기자가 취재를 한 둘째 날인 25일 오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민생활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노인복지과·청소년정책과·일자리정책추진단을 대상으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구본승 의원은 일자리추진단에 민간협력회의가 고용증대를 위해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를 묻고 강북구의 고용실태와 구직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박문수 의원이 취업정보센터가 너무 좁고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조반 단장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1층 민원실의 유아방 옆에 공간을 넓혀 상담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성희 의원은 노인요양원과 경로당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했는지 묻고 화재예방교육

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연 의원은 관내 경로당에 식사하는 노인 수와 상관없이 매달 40kg씩 쌀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원이 적은 곳은 남아도는 쌀로 떡을 해먹기도 해 차등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두형 노인복지과장은 강북구노인회에서 공평하게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백균 의원은 노인들에게 반찬도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새마을 등의 단체에서 담그는 김치를 경로당에는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또 이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고, 노과장은 간이영수증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식 의원은 변동2차종합사회복지관이 무상급식을 위한 비용으로 연 8억 원의 시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실제로 밥을 먹는 인원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보건의위원회

26일 오전 기자는 기획재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보건의위원회 감사장에 들어가 취재를 했다. 정행기 국장을 비롯해 기획예산과·재무과·지역경제과·세무과·부동산정보과에서 과장과 직원들이 출석했는데, 10시에 시작해 1시간 동안 감사를 벌인 후 두 팀으로 나뉘어 하기로 하고 지역경제과와 세무과, 부동산정보과는 돌려보냈다. 거의 모든 직원들이 나와 오랫동안 기다림으로써 생기는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행정보건의위원회는 전체 6명 중 김용욱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여성 의원이었다. 그 중에서도 초선 여성 의원이 3명을 차지했다.

제일 첫 질문은 초선의 이순영 의원이 시작했다. 이 의원은 여성구정평가단의 운영실태와 조정교부금이 남으면 반납하는지를 물었다. 정명수 기획예산과장은 조정교부금은

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실과 이미 제1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보건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도 본회의에서 보류됐다고 상기시키며 도시계획사업으로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정 국장은 더파인트리 콘도 건설사업과는 별개로 서울시장수도사업본부가 앞으로 늘어날 우이동과 쌍문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급수시설이라고 강조하며 의원들에게 차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종순 의원이 만일 이번엔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던지자 정 국장은 서울시장수도사업본부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의원은 강북구 중장기계획심의위원회에 유일한 구의원으로서 참여한 적이 있다며 여기서 확정된



▲ 행정보건의위원회 감사장에서 선서하는 기획재정국 소속 공무원들

남더라도 반납하지 않고 일반재정으로 처리해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답변했다.

이종순 의원은 정행기 국장에게 더 파인트리 측의 수유배수지 기부채납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요구했다. 정 국장은 옛 그린파크부지에 1,500평 규모를 서울시장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더파인트리와 강북구

계획안이 구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 평가가 보통이고, 구 자체의 평가는 우수로 나왔는데, 저자가 쌓이고 있는 현실에서 강북구청이 너무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를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성수 기자 sungshuh@hanmail.net〉

강북구의회, 제147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14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의 세부일정으로는 2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과 각 상임위원회별 현안 활동 등이 진행되고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강북구의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된다.

내년예산 강북 2,846억

2011년 예산안 편성 구의회 제출...가용재원은 줄어 긴축재정 될 듯

박경수 강북구청장과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2011년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강북구

강북구의 내년도 예산총액은 2,846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72억 6천만원, 특별회계는 73억 7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과 조경교부금이 감소되어 총 61억 5,900만원이 증가했으나 특별회계는 61억 6,4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강북구의 내년도 세입 재원규모는 지방세 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제 개편에 따른 취득세 수입 감소로 인해 서울시장으로부터 교부되는 조경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여 재정규모는 더욱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 각종 행사성 경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10% 삭감하였고 매년 개최하는 4.19 소극장 음악회, 한마음 음악회 등 문화체육행사도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새해 해맞이 행사, 3.1 독립운동 제헌행사 등 꼭 필요한 기념행사도 형식을 간소화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했다.

조정교부금 배분을 인상안 상정 처리나서



유근성 강북구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조정교부금 배분율 인상'과 관련

된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 자치구의회에서는 이같은 결의를 근거로 세제개편 촉구건의문을 마련 중이다.

유 의장은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매우 심각하며, 사회복지·교육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대로 재정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소되고 있어 구 세입의 30%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내년도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조정교부금 배분율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작성해 의장협의회 명의로 서울시에 제출해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에 관한 세제개편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교부금 배분을 인상안 상정처리

유근성 의장, 18일 의장단협의회에서 제안설명도 마쳐

유근성 강북구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조정교부금 배분율 인상'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유 의장은 강동구의회가 주관 개최한 회의에서 조정교부금 배분율 인상을 위해 자치구의회 차원에서 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이날 회안 안건으로 상정시켜 제안설명을 하고 의장협의회 명의의 결의안을 만드는 데 초석을 다졌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 자치구의회에서는 이같은 결의를 근거로 세제개편 촉구건의문을 마련 중이다.

유 의장은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매우 심각하며, 사회복지·교육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대로



유근성 의장

재정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소되고 있어 구 세입의 30%를 차지

하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내년도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조정교부금 배분율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작성해 의장협의회 명의로 서울시에 제출해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에 관한 세제개편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사 건립 시급한데 적립기금 잘라 써버리면 안돼

강북구의회 이백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려운 때에 예결위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내년에도 강북구의 살림이 매우 어렵지만 꼭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는 예산을 꼭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백균 의원은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발언을 열었다.

초선 강북구의원으로 활동했던 6년 전인 2004년에도 예결위원장을 한번 맡았던 적이 있다며 이 위원장은 도봉구 방학동과 경계지점인 우이동 고갯길 인도 설치사업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해 보행자들에게 안전한 도로로 탈바꿈시켰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 전까지는 그 도로에 인도가 없어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때 그렇게 인도 설치공사를 한 후에는 지금까

지 안전하잖아요."

이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 중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해온 431억 원에서 절반 정도인 220억 원을 떼어내 삼각산동청사와 복지관, 보육·여성정보센터 등을 신축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구청장실에도 물이 새 양동이 받쳐놓고 있는 실정에서 그것을 전용해서 다른 데 다 써버리면 구청사는 언제 짓습니까? 리모델링으로 수리한다고 해도 불과 10년 정도 만버틸 뿐입니다."

이 위원장은 구청사 건립기금은 손대지 말고 모자라는 예산은 정부의 지원을 어서 받아서라도 신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치구 행정 통합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구청사 건립을 중단시킨 상태지만 강북구의 상황이 다른 만큼 지금

이라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호화청사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비가 새 양동이를 받쳐놓고 근무해야 하는 자치구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사 건립기금을 손대지 않으면 어떤 항목에서 동청사나 여성·보육정보센터 등을 건립할 예산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는 몹시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박경수 구청장 공약사업인 만큼 저학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63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제4대 강북구의원을 지낸 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그는 올해 4년 만에 민주당 강북구 나선거구(수유·동·우이



동·인수동)에서 복수공천을 받고 기초 내선으로 입후보했다. 한나라당 텃밭에서 매우 불리한 전부를 치렀으나 권토중래에 성공했다.

(허성수 기자 sungshuh@hanmail.net)

[인터뷰] 이백균 강북구의회 예결특위위원장에게 듣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로 구민에게 도움되도록



34만 강북구민의 새해 살림살이를 해 나갈 2,846억 3천만 원의 예산안 심의를 총괄할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백균 의원(강북구나선동, 우이동, 인수동, 민주당 출신)을 만나 예산안 심사 및 예결특위 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이백균 위원장은 "2011회계연도 새해예산안 일반회계 총 지출 규모 2,772억 6천 만원은 2010년 대비 2.3%가 증가했으나 저소득계층이 가장 많은 강북구로서는 복지비 부담이 전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도 떨어지는 추세여서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경

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이로 인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어 이웃사랑 실천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

제147회 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배·동료의원들이 당초 계획한대로 복지 관련 예산을 확충해 내년에는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개개인이 지역대표로서 항상 저소득 주민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는 모범적인 강북구의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결특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로 34만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예결특위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의해 모범 답안을 내놓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유호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며 청년 실업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내년도 재정이 어렵지만 꼭 추진해야 할 분야의 건립비용을 충당하고자 431억원의 건립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220억 3천3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남은 청사건립기금은 계속관리 적립해나가겠다"며 "주부가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가는 심정으로 예산을 심사하여 강북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백균 강북구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인터뷰

"주부처럼 살림 알뜰하게 챙길터"

"우리구 살림살이인 예산심의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34만 강북구민의 새해 살림살이를 해 나갈 2,846억 3천만 원의 예산안 심의를 총괄할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이백균 위원장(민주당 강북나선동구)이 선출됐다.

이백균 위원장은 "2011회계연도 새해예산안 일반회계 총 지출 규모 2,772억 6천 만원은 2010년 대비 2.3%가 증가했으나 저소득계층이 가장 많은 강북구로서는 복지비 부담이 전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도 떨어지는 추세여서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이로 인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어 이웃사랑 실천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

제147회 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배·동료의원들이 당초 계획한대로 복지 관련 예산을 확충해 내년에는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지난 제4대의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이후 두 번째 중책을 맡아 감회가 새롭다며 "개개인이 지역대표로서 항상 저소득 주민



이백균 위원장

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는 모범적인 강북구의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결특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로 34만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예결특위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의해 모범 답안을 내놓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유호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며 청년 실업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내년도 재정이 어렵지만 꼭 추진해야 할 분야의 건립비용을 충당하고자 431억원의 건립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220억 3천3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주부가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가는 심정으로 예산을 심사하여 강북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에 대동강 물이?



강북구의회 147회 2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식 의원이 "대한민국에서 약속물 값을 받는 곳이 아직도 있다?"며 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백련사입구 약수터 물 값을 받는다며 이는 강북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약수터가 개방되고 있지 못하다며 구민들로부터는 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백련사 입구의 약수터는 사설 약수터로 물 값이 아니라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관리하는 관리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 의원은 "관리비 차원이 라면 구청에서 관리하면 될것"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구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발언 통해 케이블카 설치와 공무원 근무태도 지적

'때'를 아시나요? 석고대죄 하세요



이순영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 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지금이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순영 의원은 '지역시민들의 여론 조사, 공청회 실시, 환경단체의 반대는 집빠지는 소리'라며 '30년 후의 강북구를 걱정한다면 일부의 잠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케이블카 설치 문제로 더 이상 망설이면 안된다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목에서 우매한 행동과 실수로 때를 놓친다면 강북구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가 될것이라며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연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 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에서 '박경수 강북구청장을 존경할 수 없다'는 신상발언을 해 눈

길을 끌었다.

강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우이동에서 구청의 국과장들이 강북구체육회 임원들간 족구대회가 있었고 뒤이어 오후 4시부터는 술판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가의 녹봉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의 이번일은 어찌구니가 없으며 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무두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그 일을 못하면 박경수 구청장이 의회 앞마당에서 석고대죄를 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케이블카 설치문제 때맞춰 추진하라”

이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제6대의회 들어 첫 정례회를 맞은 강북구의회가 23일 제14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고 그 첫 주자로 이순영 의원(한나라당)이 신청해 우이동 케이블카 설치문제를 밝혔다.

이 의원은 발언에 나서 “우리 사회의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는 법이고 때를 놓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임을 강조한 뒤 “지금 이때를 놓친다면 강북구는 영원히 산만 있고 케이블카는 없는 안타까운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해야한다.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하면서 김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미래의 강북구를 생각한다면 일부의 잡음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발할 수 있는



이순영 구의원

땅도 없고 기업을 유치할 장소도 없는 강북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며 “케이블카 설치문제를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되고 재정자립도마저 최하위인 강북구를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했다.

또 이 의원은 “때를 놓친다면 강북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고 강북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강북구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케이블카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근무중 업무팽개친 공무원 퇴출을”

강남연 의원, 강력 성토

강남연 강북구의회 의원(한나라당)이 23일 신상발언을 통해 근무시간에 체육대회에 참석한 공무원을 겨냥해 강력 성토했다.

강 의원은 “구청의 국장 과장 5급이상 간부 들 및 동장들과 강북구 체육회 임원들간에 족구대회가 근무시간인 오후 2시부터 있었다”고 정황을 밝힌 뒤 “공무원들이 업무를 팽개치고 족구대회를 했다는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연 구의원

강 의원은 족구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오후 4시에서 5시에 술판이 벌어졌이라며 “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모두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 일을 못하면 구청장이 의회 앞마당에 돛자리 펴놓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북구의회에 더파인트리 재검토, 보류 결정 요청

북한산 더파인트리 특혜의혹과 수유배수지 기자회견 가져



북한산 콘도미니엄 더파인트리 특혜의혹과 수유배수지 기부채납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산 콘도미니엄 더파인트리 특혜의혹과 수유배수지 기부채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재검토해달라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 중단 촉구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147회 정례회 회기시작을 앞두고 이 안건을 다시 한번 재검토, 보류 결정해주시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 조례는 더파인트리 측에서 수유배수지(토지 지번 산22, 산21-1, 199-4번지) 신설과 그로 인한 기부채납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 지난 제1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에 있었다.

이날 회원들은 “수유배수지(토지 지번 산22, 산21-1, 199-4번지) 신설은 북한산 콘도미니엄&스파 더파인트리의 주거와 스파시설의 급수공급에 배수지 신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강북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22일 오전 9시30분 강북구의회 앞에서 북한산 콘도미니엄 더파인트리 특혜의혹과 수유배수지 기부채납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북한산 콘도미니엄 더파인트리 특혜의혹과 수유배수지 기부채납 재검토 기자회견가져

22일 강북구의회 현관앞에서 대책위 회원들 촉구

북한산 콘도미니엄 더파인트리 특혜의혹과 수유배수지 기부채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 강북구의회 앞에서 열렸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 중단 촉구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은 제147회 정례회 회기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날 이 안건을 다시 한번 재검토, 보류 결정해주시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 조례는 더파인트리 측에서 수유배수지(토지 지번 산22, 산21-1, 199-4번지) 신설과 그로 인한 기부채납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 지난 제1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에 있다.

이날 회원들은 “수유배수지(토지 지번 산22, 산21-1, 199-4번지) 신설과 그로 인한 기부채납이 수유동 일대 안정적 급수공급을 위해서라고 보지 않고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북한산 콘도미니엄&스파 더파인트리의 주거와 스파시설의 급수공급에 배수지 신설의 또 다른 측면이며 이에 더파인트리에서 기부채납의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공급시설 저촉지역으로 더파인트리 콘도&스파의 상수도공급은 수유배수지 신설이 아니면 불가능했기에 수

유배수지 신설이라는 결론을 맺은 것이라고 보고 “강북구청이 더파인트리 콘도미니엄 건설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수도공급시설 저촉지역의 빗장을 풀어준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수유배수지 부지만 기부채납되어 배수지가 건설되고 자상 공간에 휴식시설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더파인트리 분양 이후 콘도 회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휴식공간 진입로를 강북구 주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북한산 경관을 훼손하고 강북구민에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할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로 인한 강북구청의 특혜의혹과 열세남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 수유배수지 기부채납관련 의원님의 신중한 검토를 재차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지 않았다.